

## “평생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줘 감사합니다”

인천 강희진씨, 도 사회복지협의회 협조로 2박3일 제주여행  
EBS희망풍경 제작진·장애인 마라토너 배재국씨도 지원 받아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에 지난 22일 특별한 감사편지가 도착해 협의회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셨다.

지난 4월,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용 특장차량(JDCar)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2박3일간 제주도 가족여행을 다녀간 강희진(46·인천)씨가 그 주인공이다.

편지에는 “제가 세 살 되던 해 아버지가 병환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를 대신해 저를 돌봐주던 언니도 1급 장애를 갖게 되었다. 일평생 한번도 하지 못했던 가족여행을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의

도움으로 무사히 할 수 있었다”라며 “덕분에 어머니와 언니의 컨디션에 맞게 좋은 여행을 할 수 있었고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해 주신 사회복지협의회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사를 드립니다”라며 “여건상 여행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막연하게 꾸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출발점이 제주사회복지협의회이길 바란다”고 말을 마무리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희진씨의 동의를 얻어 홈페이지(http://jejubokji.net)와 SNS에 편지 전문을 공개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5월에는 두 쌍의 장애인커플의 제주여행을 돕기 위한 EBS희망풍경 제작진, 제주국제관광 마라톤에 참가하기 위해 온 장애인 마라토너 배재국(21)군 등 특별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잇달아 복지용 특장차량을 이용했다.

배군의 아버지 배종훈(51)씨는 “휠체어를 탑승한 채 차량을 타고 내릴 수 있어 재국이 매우 편안해했고 휠체어 2대형 차량으로 경주용 휠체어를 접지 않고 이동할 수 있어 편리했다”라며 “차량 지원 등 제주에서 좋은 추억들을 쌓을 수 있게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70. 제주 사회 복지 협회 협조로 2박3일 제주여행을 다녀간 강희진씨(가운데)와 어머니(왼쪽)와 언니(오른쪽)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강희진씨는 “제가 세 살 되던 해 아버지가 병환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를 대신해 저를 돌봐주던 언니도 1급 장애를 갖게 되었다. 일평생 한번도 하지 못했던 가족여행을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의 도움으로 무사히 할 수 있었다”라며 “덕분에 어머니와 언니의 컨디션에 맞게 좋은 여행을 할 수 있었고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 지난 4월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의 도움을 받아 생애 첫 가족여행을 제주도 다녀간 강희진씨 가족과 지난달 22일 도착한 강씨의 감사편지(위), 지난달 21일 열린 제주국제관광마라톤에 참가중인 배재국(21)군과 아버지 배종훈씨(아래)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추진

3개 분야 98종·최대 90%까지 지원

제주도는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보이용과 의사소통 등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한다고

지난달 15일 밝혔다. 보급 품목은 장애유형에 따라 ▲점자정보단말기·화면낭독소프트웨어·독서확대기 등 49종(시각장애) ▲특수키보드·특

수마우스·터치모니터 등 18종(지체·뇌병변장애) ▲영상전화기·의사소통보조기·언어훈련 소프트웨어 등 31종(청각·언어장애)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제주도청 정보융합담당관 사무실이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www.at4u.or.kr)도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오는 7월 14일 발표될 예정이며 대상자에게는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지면소개

- 종합 ..... 3면  
“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
- 특집 ..... 4면  
제11회 가족애(愛) 사진 공모전
- 오피니언 ..... 6면  
시론·칼럼·기고
- 기획 ..... 7면  
제주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10)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 도내 사회복지 인권향상을 위해 법률 홈닥터가 달려가겠습니다

####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이용자·사회복지종사자·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내용은?

1. 인권상담
2. 소송 절차 안내
3. 법률구조기관 등 연계
4. 법문화 출장 교육 등

#### 신청 방법은?

-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예약하시면 됩니다.
- ▶ 인터넷 상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법률홈닥터에서 신청
  - ▶ 전화상담 :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064)702-3782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 노인 빈곤 해소 위한 기초연금 선정기준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가결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지난 달 17일 열린 제3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선정기준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결의안 내용은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에 대한 개선 대책과 공시지가 반영 등 불합리한 선정기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 17개 시도의 특성을 반영한 기초연금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연금 수급률을 70%까지 확대할 수 있는 대정부 대책 마련 및 최선의

노력 요청이다.

이날 김영보(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의원은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어떤 의지를 갖고 할 방침이 있는지”라고 물었다.

양시연 국장은 “기초연금법이 65세 노인 70% 정도를 기초연금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인데 제

주도가 62% 남짓으로 전국평균(65%)에도 미치지 못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도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경기도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최근 개소한 사회복지창의센터를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나갈 생각이다”고 답했다.



▲ 지난달 17일 열린 제351회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임시회 제1차 회의.

###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개소

새로운 복지모델 등 다각적 연구기능 수행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센터장 심경수)가 지난달 2일 제주상공회의소 건물에서 공식 개소하고 현판식을 가졌다<사진>

제주발전연구원이 위탁 운영하는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는 인구유입, 복지욕구 및 수요 증가 등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따른 새로운 복지모델을 제시하게 된다.

아울러 △사회복지분야 중·단기 과제 발굴 등 복지재정

증가에 따른 재원의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타 시·도 우수 복지제도 사례분석 △행정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컨설팅 지원 △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 제주형 사회복지 혁신사례 발굴을 위한 다각적 연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초대 센터장에는 지난 3~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심경수 전 제주대 행정대학원 교수(48세)가 임명됐다.

### ‘중증뇌병변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참가자 모집

제주장애인평생교육센터, 주말체험·캘리그래피 교육과정 진행

제주장애인요양원(원장 정석왕) 부속 제주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제주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중증뇌병변 장애인과 가족의 즐거운 여가선용 및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사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자녀(중증뇌병변장애인)와 함께하는 주말 체험교실(월1회/6~12월)과 캘리그래피(초급-주2회/9~10월)과정으로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장애인요양원 홈페이지(www.sinwonwelfare.kr)를 참조하거나 센터(722-9528)로 문의하면 된다.

### 자활근로자 근로의욕증진 프로그램 개최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이사장 김효철)는 지난달 12일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제주수놓음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제주시가 주최하는 ‘2017 제주도 자활근로자 근로의욕증진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도 지역 자활사업 참여주민이 함께하는 공동행사로 190여 명이 참가했다.

참여자간 교류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긍심 및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쓰레기 감량 필요성을 체험하는 봉개동 쓰레기위생매립장 방문과 함께 다희연,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까망고띠하우스 등을 다니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 ‘온드림스쿨 인성교육 전문연수’ 실시

제주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기관장 김순실)은 지난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 삼다수홀에서 도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온드림스쿨 인성교육 전문연수’를 실시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주최한 이번 연수는 ‘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이 공동으로 주관한 놀이와 인성을 융합한 인성교육 ‘아자! 놀이로 하는 정6품 인성교육 지도자 기본과

정’이 진행됐다.

온드림스쿨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아자!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들이 즐거운 놀이를 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구조화된 놀이 프로그램이다.

**758@1377 푸드마켓 FOOD MARKET**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5월 기탁 현황**

▲금강축산유통=축산물194kg ▲유진상사=오투기 식품3,120개 ▲금강수산유통=수산물27kg ▲꽃비나리는뜨락=떡386개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474모 ▲던킨도너츠 제주외도점=도너츠378개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1,685개 ▲모양=제과류56봉 ▲미인빵=빵22봉 ▲빠라빠빵=식빵등63봉 ▲신송식품(주)천안공장=장류175kg ▲신화유통주식회사=식재료12개 ▲암암영농조합법인=빵104봉 ▲영화식품=식재료217개 ▲이든이네=건멸치15kg ▲자연드림 이도점=빵10봉 ▲제주보리촌=보리빵865개 ▲제주특별자치도=감귤주스200개 ▲갯어클락=식빵17봉 ▲타르타=에그타르트75개 ▲파리바게트 동광초점=빵71봉 ▲행복나눔마트 오라점=빵273봉

•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7년 4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 구분      | 후원금수입     | 후원금사용액     |
|---------|-----------|------------|
| 재가결연후원  | 6,125,000 | 13,452,080 |
| 난치병환아후원 | 55,000    | 0          |
| 자원봉사후원  | 385,000   | 385,000    |
| 복지사업후원  | 940,000   | 3,721,400  |
| 푸드마켓후원  | 3,215,000 | 105,660    |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

## 도, 제12회 입양의날 맞아 국내입양 활성화 캠페인



▲ 지난달 11일, 산지천 광장에서 입양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이 진행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11일, 제12회 입양의 날을 맞아 흥익아동복지센터와 함께 국내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제주시 산지천 음악분수대 광장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선 입양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국내 입양 절차와 방법 등을 도민에게 안내하며 입양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도민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도내 입양 기관은 도련 1동에 소재한 흥익아동복지센터가 있으며 1984년 위탁 지정된 이후, 보호자

로부터 이탈된 380명에게 건전한 가정을 제공해 왔다.

현재 국내 입양의 경우, 입양 아동에 대해 매월 15만원의 ‘입양 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등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 아동을 입양하면 월 최대 62만7000원까지 장애 아동 양육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도내 입양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7명, 2013년 9명, 2014년 6명, 2015년 5명에 이어 지난해 3명으로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 실버스타연극단 ‘하늘재판’

## 오는 23일 문예회관서 2차례 공연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두호)은 오는 23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늘재판’ 연극 공연을 펼친다<사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이번공연은 총 2회로 구성되어 낮 공연(15:30~16:40)은 무료로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며, 저녁 공연(19:30~20:40)은 입장권 1매당 5000원의 유료공연으로 수익금 전액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될 예정이다.

국내 최고령 연극단으로 전국에 알려져 있는 실버스타연극단은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11년에 기획·창단되었고, 매년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이슈들을 창작 스토리로 구성하여 2011년 ‘미안해’, 2012년 ‘못잊어’, 2013년 ‘불효자는 읍니다’,

2014년 ‘당신만 있어준다면’이란 주제로 연극을 무대에 올려 많은 호평을 받았다.

2016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 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연극은 ‘미안해’ 다섯 번째 이야기로 구좌읍과 조천읍 지역 어르신 10명이 공식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어 되어 작년 8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복지관 관계자는 “실버스타연극단은 노인이 연극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고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 ‘봉사하늬’ 올레길 환경정화 활동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지역사회봉사단 ‘봉사하늬’ (대표 김하늬)는 지난달 14일 제주올레길 21코스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김하늬 대표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 걱정했는데 하도 어촌계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날씨 좋은 날, 좋은 사람들과 봉사활동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 지역사회봉사단 ‘봉사하늬’의 지난달 21일 환경정화 활동 후 기념촬영 모습.

한편 ‘봉사하늬’는 제주도민과 이주민이 제주의 소중한 자연을 보존하자는 마음 하나로 모인 봉사단으

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제주를 만들기 위해 매월 1회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뷰티닥터’ 지역사회봉사단 위촉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4일 ‘뷰티닥터’(대표 김춘일 교수)를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했다.

뷰티닥터는 ‘의사와 같은 마음으로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자’는 의미로 한라대학교 뷰티아트과 학생들로 구성된 헤어전공 동아리이다.

봉사단은 1998년 봉사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매

월 3회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헤어커트, 염색 등이·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김춘일 교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문재능기부를 통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며 “아름다운 제주지역사회를 위해 이·미용봉사와 같이 전문재능을 활용한 봉사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

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

지역사회봉사단은 각 동아리(단체)가 가진 고유한 전문재능을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시설의 욕구에 맞는 봉사활동(서비스)을 위해 제공한다. 5인 이상으로 구성돼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한 봉사단체라면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 가능하다.

## 사회복지아카데미 6월 교육프로그램 안내

### 사례관리 전문과 양성·법정의무교육 과정 진행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2017 사회복지아카데미 6월 교육프로그램에 ‘사례관리전문과 양성교육(기초과정)과 법정의무교육 하루에 끝내기’를 진행한다.

우선 사례관리전문과 양성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수준·분야별 사례관리교육을 통해 다양한 복지대상자에게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돕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으로 강사에는 조현순(경인여대)·김성천(중앙대)·유명이(대림대) 교수가 맡는다.

교육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18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중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40명을 대상으로 이뤄

진다.

교육 신청은 오는 7일까지 선착순 접수받고 있으며, 교육비는 회원 4만원, 비회원 5만원으로 종식 및 교재를 제공한다.

법정의무교육 하루에 끝내기 교육은 오는 29일 실시되며 사회복지시설·단체 종사자 50명이 대상이다.

인권(2시간)·성희롱예방(1시간)·개인정보보호법(1시간)교육으로 4시간 진행되며 교육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선착순 접수 예정이다.

법정의무교육의 자체 진행이 어려운 도내사회복지시설단체 교육부담 경감을 위해 이뤄지는 이 교육의 비용은 회원·비회원 구분없이 1만원이다.

교육관련 자세한 문의는 복지사업팀(☎064-702-3784, 담당 황이삭)으로 하면된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제11회 사랑애포(애) 사진 공모전

# 대상 등 수상작 7편 지상 소개



| 대상 | 창 너머로 본 세상 \_ 박문희



| 금상 | 말이 필요 있나요? \_ 차예린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강철남)는 지난달 13일 '제11회 사랑애포(애)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와 함께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모전은 지난 3월24일부터 4월24일까지 한 달간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564편(214명)이 응

모해 이 중 17편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ju-fos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7작품을 소개한다<편집자주>.



| 은상 | 드림캐쳐 : 아가... 오늘 밤 좋은 꿈 꾸렴 \_ 석명재



| 은상 | 모래성 쌓기 \_ 박동오



| 동상 | 엄마, 내 사랑을 받아줘요 \_ 김수경



| 동상 | 행복의 비상 \_ 김목양



| 동상 | 행복한 우리가족 \_ 디딤돌그룹홈

소/식/마/당

‘똑딱똑딱’ 목공예 프로그램



디딤돌 그룹홈(대표 송일심)은 카카오 인터넫하는 돌하루방 지원으로 자립지원프로그램 일환인 ‘똑딱똑딱 목공예’ 프로그램을 입소아동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 3월12일부터 익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보물상자, 좌식테이블, 5단 수납장 등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아동들의 성취감과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기회를 제공했다.

존중해孝, 고마워孝, 사랑해孝



제주수눔음지역자활센터(센터장 고은택)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달 8일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존중해孝, 고마워孝, 사랑해孝’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센터 직원들이 50대 이상 자활 참여자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국수를 제공했다. 또한 우리동네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이 어버이날 감사 영상편지를 보내 의미를 더했다.

보리피자 만들기 체험활동



성인발달장애주간보호시설 희망나래활동센터(원장 박인향)는 아산사회복지재단 지원으로 지난 달 10일 한경면 낙천리에 위치한 아홉굿 마을에서 ‘보리피자 만들기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찰보리 쌀과 파프리카 등의 재료를 활용해 발달장애인이 직접 피자를 만들고 함께 나눠 먹음으로써, 동료 간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아라마을 사업 추진위원회 결성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지난 달 10일 복지관 소회의실에서 ‘아라주는 아라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지역 내 자생단체 회장 및 간사, 아라신문 편집국장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지속적인 마을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사업 방향에 대한 계획·논의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함께 한 5년, 함께 할 50년’



엘린(원장 한봉금)은 지난 달 18일 호텔 세미나실에서 개원 5주년을 기념하는 ‘함께 한 5년, 함께 할 50년’ 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은 6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하여 개회사, 케이크커팅식, 경품행사로 이뤄졌다. 이날 한 원장은 “희망을 꿈꾸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도전·신뢰·존중을 기본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엘린이 되자”고 말했다.

춘강, 사회공헌활동 진행



사회복지법인 춘강(이사장 이동한)은 지난 달 20일 성산읍장애인지원협의회(회장 강병돈)·제주사회복지협의회 연합봉사단(회장 원석철)과 성산읍 온평리 일원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법인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며 이뤄진 이번 활동은 주거환경개선 3가정과 마을·해안 정화, 무료 진료, 김장김치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진행됐다.

‘라인댄스’ 배달강좌 실시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은 제주시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배달강좌 ‘중증발달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라인댄스’를 실시한다. 회차당 2시간씩 10회기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적인 근무 자세와 전반적인 신체활동이 부족한 중증장애인들의 건강능력 향상과 근로교육 고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랑의 자장면’ 나눔



정통중화요리 아래향(대표 이현석)은 지난 달 22일 사회복지법인 정혜원(원장 이흥기)의 장애인, 직원들에게 자장면 120여 인분을 손수 만들어 후원했다. 이현석 대표는 정혜원 가족들을 위해 매월 1회 자장면 나눔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을 실행하고 있다.

“누빔으로 세상을 기워요”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고현수)은 지난 달 17일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후원으로 장애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누비라’ 퀼팅강좌를 진행했다. 역량강화 기회와 사회참여활동이 부족한 장애여성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여성들의 표현력 발전과 강화, 여가선용 기회 창출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악 퓨전공연 관람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소장 김도영)는 지난 달 11일 제주시후원으로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린 세종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조관우&조통달 그 때, 그리고 지금’ 공연을 관람했다. 임청년(가명)군은 “국악이 딱딱하고 지루할 줄만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밌고 흥겨웠다”라며 “기회가 된다면 또 보고 싶다”라고 관람 소감을 전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창립



제주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회장 최은미)는 지난 달 17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실에서 장애인 단체, 관계기관 단체장, 시설종사자·이용인·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기념식을 가졌다. 최 회장은 “안전한 참여와 선택에 기반한 주간보호시설 운영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이고 동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리수납봉사단 발대식



제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영희)는 지난 달 19일 ‘정리수납 봉사단(회장 함순여)’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수료생들로 구성된 봉사단은 매월 1회 지역사회를 위해 자신의 재능을 나눌 계획이다. 한편 센터는 정리수납, 라인댄스, 손발마사지, 스킨스쿠버, 안전 5개 과정에 재능나눔 봉사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시론

### 새 정부의 복지정책에 거는 기대

새 정부가 탄생했다. 국민의 80% 이상이 '국정운영을 잘 할 것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소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국정운영의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욕망을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크다.

복지분야에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기초연금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 복지분야 풀어야 할 숙제

최근 몇 개월 동안 헌법정신에 대해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대한민국헌법」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지방정부의 고유 사무로 부여하고 있으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표준화된 기준이 없음으로 인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복지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적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예산 조차 복지예산으로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볼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지난 2016년 2월 제주도의회의는 결의안을 제안, 그 뜻이 청와대·보건복지부 등에 전달되었다.

#### 기초연금 개선방안 촉구

제주도의 낮은 기초연금 수급률도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초연금 전국 평균 수급률은 65.4%이며, 전남 81.2%, 서울 52.5%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 제주의 가구소득은 2015년 4천66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2016년은 4천181만원으로 전국에서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62.7%로 서울(52.5%), 경기(59.4%), 세종(59.4%), 울산(62.5%)을 제외하고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

더욱이 문재인정부는 기초연금을 동일하게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 만큼 우리도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5월, 제351회 임시회에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선정기준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우리의 뜻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전달될 것이다.

현 정부가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소외되고 어려운 국민들의 아픔을 따뜻한 가슴으로 보듬어주기를 기대해본다.



김용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기고

### 새로운 시대의 효(孝)에 대한 단편적 고찰



김성진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장

효(孝)는 동아시아 특유의 문화적 가치이다. 그러나 불효는 후기 산업사회가 만들어 낸 산물이라고 한다. 후기 산업사회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치열하게 핵가족 중심으로 살다보니 누구나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효의 의미를 알기 위하여 공자(孔子)의 효관념을 살펴보면, 첫째 공자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부모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맹자는 효를 백행(百行)의 근본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를 제왕의 도로 확대하였던 것이다.

이이(李瑀)의 효사상은 부자(父慈)·자효(子孝)·신충(臣忠)·부부별(夫婦別)·형제우(兄弟友)·붕우유신(朋友有信)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이의 시대에 이르러 수신과 효행에는 구체적인 조건이 따르고, 아버지의 자애 보다는 자식의 효도에 중점이 두어진다.

17세기말부터 18, 19세기에 이르면서 효에 대한 의식에도 변화가 보인다. 이익(李瀾)의 경우를 보면 충효를 말하면서 충에 이르자면 효가 있어야 하고 효가 아니면 곧 불충(不忠)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곧 효보다 충을 우선하는 태도이다. 그리고 근대화의 물결들과 접하면서 실학자들이 윤리관에도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그 한

가지 예로서, 동학의 효관념을 보면 효행에 관하여 "대효(大孝)란 지효(至孝)를 말함이다.

한 사람이 능히 한 나라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능히 천하의 사람들을 느끼도록 하니, 천하의 지성이 아니면 어찌 이에 이르리오. 사람이 느끼면 하늘도 또한 느끼느니라."고 하여 효성의 어려움을 말하고 효행의 실천을 가르쳤다.

이처럼 효를 행하는 자는 청렴하고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변동하는 새로운 시대에 효의 가치와 방식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후기 산업사회의 병폐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백행의 근본이 되는 효 사상이 널리 퍼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과 더불어 제도적으로 가족과 이웃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칼럼

### 비정상의 정상화가 왜 이리 신선할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3주가 지났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듯 꽤나 길게 느껴진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문 대통령의 행보는 소탈하며 거침없는 소통으로 시작되었다. 그동안의 불통과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에 익숙해 있던 국민들에게 낯설면서도 기분 좋게 다가온다. 전임 정권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의 연속이다. 한마디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새삼 실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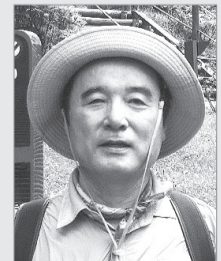
돌이켜보면, 지난 정권들은 출범 초기 때면 비정상의 정상화를 다짐하곤 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기득권 안주'와 '감동이 없는 인사' 등으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언론에서는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5년 마다 바뀌는 게 큰 비정상이라고 혹평하곤 하였다.

이쯤,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떠올려 본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듯 취임 첫날부터 탈권위 스킨십으로 연일 화제다. '지금은 맞고, 그 때는 틀리다'를 온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듯하다. 입으로만 외쳤던 취임사의 공허한 문장이 아닌 것이다. 모처럼 희망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 “문바마(Moon-bama) 대통령”

며칠 전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President 'Moon-bama' Enjoying Honeymoon in South Korea(허니문을 즐기는 한국의 문바마 대통령)”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한국 국민들은 퇴임 순간까지 높은 인기를 누리던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 빗대 문 대통령을 ‘한국의 오바마’라는 뜻의 ‘문바마(Moon-bama)’라고 부르며 반기고 있다는 내용이다. 민주화운동 유가족을 끌어안고, 식당에서 스스로 배식을 받으며, 청와대에서 참모들과 재킷을 벗은 채 커피를 마시는 문 대통령의 모습은 위계질서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신선한 충격으로 비쳐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서막일 터, 앞으로가 주목된다. 본격적인 국정 업무에 들어가면 숱한 실타래가 복잡하게 엉켜 드러난다. 길고도 험난한 여정의 가시밭길을 넘어야 한다. 성공한 대통령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스스로 다짐한대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초심을 잃기 내내 지켜나가는 데서 비롯된다. 그럼으로써 비정상의 정상화가 당연함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한다.



김범훈  
(사)Geo-Jeju연구소장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

제주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 ⑩



부형종(73)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장



“후배 장애인들이 운동하고 싶다면 도움이 필요하다 찾아와...”

# “장애인 인식개선·사회참여에 보람 느껴”

## 휠체어 농구단 창단 등 제주 지체장애인 체육계 산파역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위험으로부터 ‘극복’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극복은 곧 생존을 위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그런 탓에 타인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지만 그 당연함조차도 극복해야 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다. 그런 이웃들을 위해 ‘함께’의 가치를 키워가는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부형종 회장을 ‘제주 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 열 번째 인물로 만나 보았다.

도 목발을 짚고 다니다 장애판정을 받게 되었다. 그는 부산대학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아버지에게 던진 “이렇게 되도록 왜 여태껏 그냥 왔냐?”라는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한다. “등이 땀에 젖도록 저를 업고 그 낯선 길을 뛰어 다니셨는데 그런 말을 들어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 2016년 KWBL 휠체어농구 리그에서 우승한 제주도 휠체어농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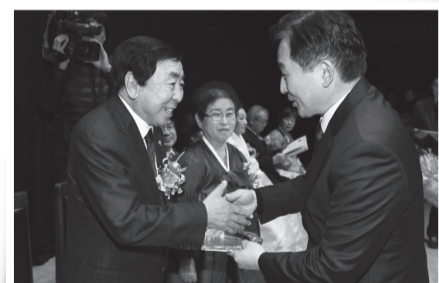
어린 시절 원인 모를 병이 장애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상담이나 안내를 받을 수 없었던 안타까운 경험은 그의 삶에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당시 병원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그에게 지체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창립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함께 활동하자는 제안이 들어온 것.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과거의 아픈 경험을 후배들에게 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그의 각오는 지체장애인협회 활동에 발 벗고 나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지체장애인협회가 1982년도에 창립된 이후에 제가 1990년부터 이사로 활동에 참여했는데요 당시에는 행정기관에서도 보조가 녀석 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거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는 모습 속에서 보람을 찾곤 했어요.”

이후, 그는 1998년부터 회장직을 맡게 된다. 제주지역 장애인단체 중에서도 회원 수로는 가장 규모가 큰 조직의 회장이 된 만큼 그

가 해야 할 일도 많았다. 어린 시절 뜻하지 않은 장애로 인해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앞설 때 느꼈던 외로움과 두려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어디에선가 장애로 인해 세상에 나오길 두려워하고 혼자 힘들어 할 누군가를 위해 활동해야 한다는 생각은 의무감처럼 그를 쫓아 다녔다.

회장으로서 지체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 활동하던 중에 후배 장애인들에게서 뜻밖에 요청을 받게 된다. “후배 장애인들이 찾아와 운동을 하고 싶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휠체어 농구단 창단을 위한 첫 제안이었죠.” 그렇게 1998년 8월 창단된 제주지체장애인협회 휠체어농구단은 창단 15년 만인 2013년도에 전국 대회 우승을 차지한 이후 2014년에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전국대회에서 우승, 2013년부터 지난해 까지 4년 연속 전국장애인체전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내며 전국 최고의 농구단으로 인정받게 된다.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체육 부문) 수상 모습.

휠체어농구단 운영은 그에게 장애인생활체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2005년 11월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의 전신격인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체육회를 창단하기에 이른다. 그의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체육부문)’ 수상이라는 영광을

안겨주기도 했다.

그가 그동안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걸어 온 길에는 ‘함께’라는 말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장애로 힘들어 하는 누군가와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렇고 ‘함께’해야만 가능한 체육활동을 통해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그의 헌신이 그렇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해 오신 분들 가운데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지 물었다.



▲ 1998년도 18회 장애인의날 걷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부형종 회장(왼쪽).

“저보다는 일찍 장애인복지를 실천해 오신故 오원국 농아인협회장님과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동한 이사장님, 양예홍 시각장애인연합회장님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분 모두 장애인당사자로서 지금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신 분들이죠. 이 분들과 함께 장애인복지를 해 올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만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가 빈틈없이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역시나 ‘함께’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가 키워가는 ‘함께’의 가치가 우리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더 든든하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한다.

정리-김성건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위 기사의 전문은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내 제주지역복지뉴스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1982년 지체장애인협회 제주도 지부 창립 당시 부형종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

시설탐방

(87)종달지역아동센터

# “안돼요” ⇨ “해 볼게요” 공정적으로 키운다

## 전시회·서핑교실 등 다양한 연계 사업 실시

이번 시설탐방은 제주도 동쪽의 작은 마을 종달리에 있는 종달지역아동센터(센터장 한재민, 이하 센터)를 찾았다. 센터는 종달교회 뒤편 숨은그림처럼 위치해 있어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종달지역아동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한재민 센터장에게 센터의 설립배경에 대해 물었다.

한 센터장은 “사실 현 센터가 설립되기 전에 종달교회 목사님께서 운영하던 기존 지역아동센터가 있었다. 그런데 2008년에 목사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지역아동센터가 폐쇄됐다. 작은 마을에 학원도 없고 학교가 끝나면 방임 되어지는 아이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교회의 협조를 구해 그 해 7월 공부방 형태로 시작하게 됐고, 다음해인 2009년 4월 지역아동센터로 정식 등록해 문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17명의 아이들로 시작했던 센터는 지난 2012년 급식·조리실 신축 확장을 통해 29인 정

원 시설로 인가받았다. 현재 센터는 28명(초등생23명, 중학생5명)의 아이들이 이용 중에 있었다.

학습·특기적성·성장과 권리·체험활동·참여활동 부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매주 1회 운영되는 예체능(토요밴드·구좌어린이합창·구좌유소년오케스트라)활동과 여름방학마다 실시되는 ‘서핑교실’이라고 했다.

센터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한 센터장은 “객관적으로 본다면 시설과 환경이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비해 낫다고 할 수 없다”라며 “때문에 센터는 지역자원연계에 집중. 혁신학교로 지정·운영되며 학생수가 점점 늘고 있는 종달초와 업무협약 구축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마을이장 및 지역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매년 전시회 또는 문화행사를 개최하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서핑교실도 지역자원연계를 통해 만들었다”고 답했다. 또한 “서핑교실을 진

행할 때 필요한 해안 안전감시자 역할도 해녀·부녀회에서 도움 주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려웠던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2009년 지역아동센터 설립허가를 받고 운영했지만 1년 동안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라며 “그때 당시 복지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전수평가를 실시하고 하위 5%에 대해 지원금을 주지 않았었는데, 평가준비를 열심히 했고 평가도 잘 받았다고 생각했으나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하위 5%에 선정됐다”며 “그 당시 가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여러모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다”고 답했다.

운영의 가장 큰 보람을 느낀 적이 있다면 말해 달라는 요청에는 “아이들 때문에 가장 힘들기도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손을 놓지 못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다”라며 센터 초창기에 아이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안하자고 하면 “안돼요”, “싫어요”, “왜 해요?”라는 반응이 먼저 나오기 일쑤였다. 사

랑의 마음이 통했는지 거칠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던 아이들이 이제는 새 프로그램을 하자고 제안하면 “좋아요”, “해볼게요”라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바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아이들이 바뀌고 있음을 느낄 때, 내면이 성숙한 아이들로 바뀌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의 노인정처럼 지역속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교회안에 있는 것이 아닌 지역 속에서 지역주민이 다같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동체 기관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 종달지역아동센터는 종달초와 업무협약, 지역주민과 협력을 통해 전시·문화행사 실시 등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4

## 세탁기에서 돈을 꺼내간 범인들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최근 제주지역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속출했다. 범인들은 피해자들이 집안 세탁기나 냉장고에 넣어 놓은 수천만원의 돈을 훔쳤다가 잡혔는데 며칠동

안 여러 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1억원이 넘는다. 대체 피해자들은 왜 갑자기 거액의 돈을 세탁기에 보관한 것일까?

#### ◆ 세탁기에 돈을 넣은 이유

범인들의 수법은 이랬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인데 누군가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려고 하니 돈을 찾아 세탁기에 보관하라”고 한 뒤 이 말을 믿은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해 세탁기에 돈을 넣어 두면 집 주인 몰래 침입해 세탁기 안에 둔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것이다. 과연 이런 황당한 말을 왜 믿고 속은 것인지 이해가 안가기도 하지만 내가 이 전화를 받을 경우 이성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범인들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전화를 받는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거래 금융기관을 알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으면 정말 수사기관이라고 믿기가 쉽다. 게다가 은행에 저금해 놓은 내 금융 재산이 곧 사라질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

으면 침착하게 확인을 하기 보다는 급한 마음에 전화기 너머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 하게 된다. 그래서 엉뚱하게 내 돈을 세탁기에 넣어 놓게 되는 것이다.

#### ◆ 보이스피싱 대비 방법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대개 검찰, 경찰을 사칭하거나 우체국, 감사원, 국정원,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인 것처럼 신분을 위장한다. 만약 이런 곳에서 전화를 받은 경우 의심의 드는 점이 있다면 전화를 끊고 내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거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 물론 전화번호는 걸려온 번호가 아니라 114나 인터넷을 활용

하여 검증된 번호로 걸어야 한다.

공공기관 사칭 이외에도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기 방법이 있는데, 가족을 납치하고 있으니 돈을 가져오라고 하거나 돌려줄 세금이 있으니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경우 경찰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즉시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보다 우선은 평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나 금융권 지연인출 제도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